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 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차이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Trajectories of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 Relatedness to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출생 이후 5년 동안의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만 5세, 만 6세, 초1, 초3 시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차(2008년)~8차(2015년), 10차(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 BCH 방법(BCH method)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 양상은 '최저수준 유지형 집단', '중간수준 유지형 집단', '일시 증가-지속 감소형 집단', '상수준 유지형 집단', '최상수준 유지형 집단',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 양상은 '상승형 집단', '중간 수준-소폭 감소형 집단', '상 수준-소폭 감소형 집단' '최상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잠재계층에 따라 만 5세-만 6세, 초1에서 최저수준 유지형, 중간수준 유지형 집단이 최상수준 유지형 집단보다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으며, 만 5세-만 6세, 초1, 초3에서 대체로 최저수준 유지형, 중간수준 유지형, 일시 증가-지속 감소형 집단이 최상수준 유지형 집단보다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잠재계층에 따라 만 5세-만 6세, 초1, 초3에서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중간 수준-소폭 감소형 집단이 상 수준-소폭 감소형, 최상수준 유지형 집단보다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녀 출생 이후 5년 동안의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문제행동(만 5세, 만 6세, 초1, 초3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rajectories of the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to classify its latent classes and how marital satisfaction influences the behavioral problems of their children between the identified latent classes. The 1st to 8th and 10th data from the Korea Child-Adolescent Panel Survey were analyzed using th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BCH method. First, based on the mother's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five latent classes were identified: 'low constant', 'intermediate constant', 'temporary increment-constantly decrement', 'high constant, and 'highest constant'.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father's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four latent classes were identified: 'increment', 'intermediate-slightly decrement', 'high-slightly decrement', and 'highest constant'. Second, mothers with low marital satisfaction had more children with behavioral problems, and their influence had more problems with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These problems progressed to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as they grew. Bo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were also found between the identified latent classes of the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Children of fathers with low marital satisfaction showed more behavioral probl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can influence the behavioral problems of their children.

Keywords : Marital Satisfaction, Children,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May 25, 2020

Accepted November 6, 2020

Revised July 6, 2020

Published November 30, 2020

1. 서론

1.1 연구 목적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부모 자신뿐 아니라 자녀 발달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4], 결혼 생활 동안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부부, 부모-자녀 관계, 형제 등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체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부부 하위체계는 가족의 다른 하위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체계이다[1]. 부부 하위체계에서 유발되는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인의 중요성 때문에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을 확인한 대다수 연구[5-6]가 선형변화모형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결혼만족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선형변화모형과 비교를 하는 경험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가 횡단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4, 7-11],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종단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활용하여 어머니 및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자녀 출생 후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자녀 출산 후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아내의 경우 남편과 비교해 결혼만족도 수준은 낮지만 하락 비율은 완만한 반면 남편의 경우 아내와 비교해 결혼만족도 수준은 높지만 하락 비율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특히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자녀 출생 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자녀 출생이 역할 갈등과 자유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전이 가설(spillover hypothesis)에 따르면 가족시스템의 한 하위 영역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특성은 가족시스템의 다른 하위 영역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14 재인용], 이에 긍정적인 결혼 생활의 질은 긍정적인 부모-자

녀 관계의 질로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특히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양육행동 및 공동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규영 외(2019)[16]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통합적 공동양육은 높은 반면, 갈등적 공동양육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박보경 외(2018)[1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육행동 및 태도, 심리적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고운(2017)[4]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만 2세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만 4세 때 양육행동을 매개로 만 6세 때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수정(2016)의 연구[8]에서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조준오 외(2016) 연구[10]에 따르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정신건강(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 선행연구는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미취학 아동 시기의 자녀의 문제행동 간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초등학교 시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 양육행동 취약성 가설(father vulnerability hypothesis)에 따르면 부부 간 갈등은 어머니-자녀 간 관계보다 아버지-자녀 관계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8]. 아버지의 양육 특성은 어머니보다 결혼만족도 및 관계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가 느끼는 결혼생활의 불만족은 자녀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및 정서적 지지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19 재인용].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생 이후 5년 동안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만 5세, 만 6세, 초1, 초3 시기) 수준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1) 어머니 및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각각 변화 궤적에 따라 몇 개의 잠재계층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가?
- 2) 어머니 및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만 5세, 만 6세, 초1, 초3 시기)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차(2008년)~8차(2015년), 10차(2017) 자료를 활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1차(2008년)~5차 연도(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녀의 문제행동은 6차(2013년)~8차(2015년), 10차(2017)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는 3개 연도 이상 응답하지 않는 자료, 문제행동은 2개 연도 이상 응답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어머니 1,594명, 아버지 1,550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결혼만족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5개 연도(2008년(1차)~2012년(5차))의 동일한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자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어머니 1차 $\alpha = .90$, 2차 $\alpha = .92$, 3차 $\alpha = .91$, 4차 $\alpha = .91$, 5차 $\alpha = .92$ 이며, 아버지 1차 $\alpha = .91$, 2차 $\alpha = .92$, 3차 $\alpha = .92$, 4차 $\alpha = .91$, 5차 $\alpha = .92$ 이다.

2.2.2 문제행동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6차(2013년, 만 5세)~8차(2015년, 초1), 10차(2017년, 초3)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6차~7차는 CBCL 1.5-5, 8차, 10차는 CBCL 6-18에 기초하여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확인하였다. CBCL 1.5-5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은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CBCL 6-18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칙위반, 공격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T점수(표준화 점수)를 사용하였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Mplus 8.3,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문제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첫째,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활용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둘째, 잠재계층 분석의 3단계 접근방법 중 BCH 방법(BCH method)을 활용하여 잠재계층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내재화, 외현화)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21].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1차(2008년) 자료, 자녀의 정보를 6차(2013년)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10대 1명(1%), 20대 494명(31.0%), 30대 1,029명(64.6%), 40대 26명(1.6%), 무응답 44명(2.8%)이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초졸 2명(1%), 중졸 6명(4%), 고졸 451명(28.3%), 전문대졸 471명(29.5%), 대졸 532명(33.4%), 대학원졸 79명(5.0%), 무응답 53명(3.3%)이다. 아버지의 연령은 10대 1명(1%), 20대 198명(12.8%), 30대 1,165명(75.2%), 40대 98명(6.3%), 50대 2명(1%), 무응답 86명(5.5%)이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초졸 2명(1%), 중졸 18명(1.2%), 고졸 396명(25.5%), 전문대졸 338명(21.8%), 대졸 563명(36.3%), 대학원졸 146명(9.4%), 무응답 87명(5.6%)이다. 아동의 월령은 60개월 59명(3.7%), 61개월 266명(16.7%), 62개월 400명(25.1%), 63개월 461명(28.9%)이며, 64개월 257명(16.1%)이며, 65개월 100명(6.3%), 66개월 31명(1.9%), 무응답 20명(1.3%)이며, 성별은 남아 819명(51.4%), 여아 775명(48.6%)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N	%
Mothers' age (yr)	19	1	.1
	20-29	494	31.0
	30-39	1,029	64.6
	40-49	26	1.6
	No response	44	2.8
Mothers'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d	2	.1
	Middle school graduated	6	.4
	High school graduated	451	28.3
	Community college graduated	471	29.5
	University graduated	532	33.4
	Graduate school graduated	79	5.0
	No response	53	3.3
Fathers' age (yr)	19	1	.1
	20-29	198	12.8
	30-39	1,165	75.2
	40-49	98	6.3
	50-51	2	.1
Fathers' education	No response	86	5.5
	Elementary school graduated	2	.1
	Middle school graduated	18	1.2
	High school graduated	396	25.5
	Community college graduated	338	21.8
	University graduated	563	36.3
	Graduate school graduated	146	9.4
Child's age (months)	No response	87	5.6
	60	59	3.7
	61	266	16.7
	62	400	25.1
	63	461	28.9
	64	257	16.1
	65	100	6.3
	66	31	1.9
	No response	20	1.3
	Child's gender	Male	819
Female		775	48.6

3.2 결혼만족도 변화 양상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결혼만족도 수준의 변화 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무변화, 선형모형(1차 함수), 비선형모형(2차 함수)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은 무변화 모형, 1차 함수모형보다 2차 함수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은 2차 함수모형 추정에 실패하여 무변화 모형과 1차 함수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1차 함수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어머니는 2차 함수모형, 아버지는 1차 함수모형을 사용하였다.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한 결과(Table 3 참조), 잠재계층이 2개인 모형에서 7개인 모형 중 5개인 모형이 모형 적합도 및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사후확률은 .84 이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른 5개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초깃값 2.540(p<.001), 선형변화율 -.046(p>.05), 이차변화율 -.015(p>.05)이며, 전체의 3.9%인 62명이 포함되었으며 '최저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초깃값 3.252(p<.001), 선형변화율 -.052(p>.05), 이차변화율 .007(p>.05)이며, 전체의 21.2%인 338명이 포함되었으며 '중간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초깃값 3.707(p<.001), 선형변화율 .739(p<.01), 이차변화율 -.307(p<.001)이며, 전체의 2.2%인 35명이 포함되었으며 '일시 증가-지속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집단은 초깃값 3.966(p<.001), 선형변화율 .035(p>.05), 이차변화율 -.016(p<.01)이며, 전체의 58.2%인 927명이 포함되었으며 '상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집단은 초깃값 4.563(p<.001), 선형변화율 .099(p<.01), 이차변화율 -.034(p<.001)이며, 전체의 14.6%인 232명이 포함되었으며 '최상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한 결과(Table 3 참조), 잠재계층이 2개인 모형에서 5

Table 2.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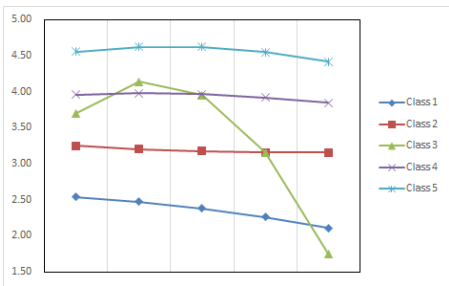
Model	χ^2	df	CFI	TLI	RMSEA(90% C.I.)	SRMR	Mean			
							Intercept	Linear	Quadratic	
Mother	No growth	229.312***	13	.914	.934	.102(.091-.114)	.059	3.796***		
	Linear	71.429***	10	.975	.975	.062(.049-.076)	.031	3.883***	-.044***	
	Quadratic	19.495**	6	.995	.991	.038(.020-.057)	.009	3.841***	.042**	-.021***
Father	No growth	436.587***	13	.691	.762	.145(.133-.157)	.181	4.147***		
	Linear	70.780***	10	.956	.956	.063(.049-.077)	.051	4.327***	-.083***	

* p<.05, ** p<.01, *** p<.001

Table 3. Fit indices for unconditional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odels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6	7		
Mother	2	15294.87	15359.36	15321.23	.827	.0000	.0000	73.1	26.9						
	3	14880.88	14966.87	14916.04	.733	.0000	.0000	58.1	22.8	19.1					
	4	14656.65	14764.13	14700.59	.785	.0001	.0000	22.1	15.2	59.4	3.3				
	5	14489.15	14618.13	14541.88	.814	.0023	.0000	58.2	14.6	2.2	21.2	3.9			
	6	14432.64	14583.12	14494.17	.834	.0057	.0000	21.3	14.2	1.4	2.8	58.2	2.1		
	7	14338.60	14510.57	14408.91	.833	.2398	.0000	2.3	10.2	46.9	3.3	12.8	11.3	13.2	
	2	13491.70	13545.16	13513.39	.687	.0000	.0000	31.4	68.6						
Father	3	13191.50	13260.99	13219.70	.710	.0021	.0000	24.6	61.9	13.4					
	4	13096.15	13181.68	13130.85	.760	.0414	.0000	24.3	60.5	13.5	1.7				
	5	13034.51	13136.09	13075.73	.748	.3081	.0000	1.8	4.1	58.1	14.0	22.1			

개인 모형 중 4개인 모형이 모형 적합도 및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사후확률은 .84 이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집단은 초깃값 2.536(p<.001), 선형변화율 .432(p<.001), 전체의 1.7%인 26명이 포함되었으며, '상승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초깃값 3.732(p<.001), 선형변화율 -.161(p<.001), 전체의 13.5%인 209명이 포함되었으며, '중간 수준-소폭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초깃값 4.334(p<.001), 선형변화율 -.105(p<.001), 전체의 60.5%인 938명이 포함되었으며, '상 수준-소폭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집단은 초깃값 4.749(p<.001), 선형변화율 -.032(p<.05), 전체의 24.3%인 377명이 포함되었으며, '최상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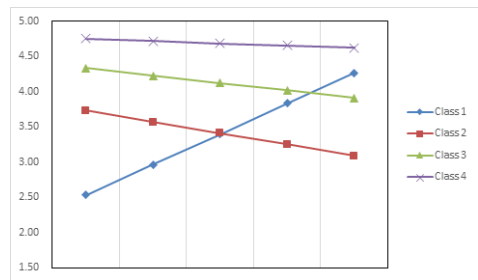
※ Class 1: low constant, Class 2: intermediate constant, Class 3: temporary increment-constantly decrement, Class 4: high constant, Class 5: highest constant

Fig. 1. Profile plot of 5-class models (Mother)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Latent classes	Estimate(S.E.)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Quadratic		Intercept	Linear		
Mother	1	2.540***(.0151)	-.046(.101)	-0.15(.027)	Father	1	2.536***(.206)	.432***(.089)
	2	3.252***(.065)	-.052(.046)	.007(.010)		2	3.732***(.119)	-.161***(.033)
	3	3.707***(.152)	.739**(.214)	-.307***(.056)		3	4.334***(.035)	-.105***(.008)
	4	3.966***(.041)	.035(.021)	-.016**(.005)		4	4.749***(.021)	-.032*(.015)
	5	4.563***(.041)	.099**(.035)	-.034***(.007)				

* p<.05, ** p<.01, *** p<.001



※ Class 1: increment, Class 2: intermediate-slightly decrement, Class 3: high-slightly decrement, Class 4: highest constant
Fig. 2. Profile plot of 4-class models (Father)

3.3 결혼만족도 잠재계층에 따른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차이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 및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만 5세, 만 6세, 초1, 초3 시기)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BCH 방법(BCH method)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잠재계층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6차연도(2013년, 만 5세), 7차연도(2014년, 만 6세), 8차연도(2015년, 초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차연도(2013년, 만 5세)에서는 1, 2집단이 5집단보다, 7차연도(2014년, 만 6세)에서는 1, 2, 3, 4집단이 5집단, 2집단이 4집단보다, 8차연도(2015년, 초1)에서는 1집단이 4, 5집단,

Table 5. Equality tests of means across classes using the BCH procedure

Latent Classes	Variables	N	M	S.E.	Overall test χ^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Variables	N	M	S.E.	Overall test χ^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Mother	Class1	62	49.69	1.35	10.376* (5<1,2)	Externalizing problems 2013	62	49.01	1.57	33.952*** (5<1,2,3,4; 4<2)
	Class2	338	49.05	0.63			338	49.05	0.61	
	Class3	35	49.41	2.14			35	49.66	2.15	
	Class4	927	48.07	0.37			927	46.61	0.36	
	Class5	232	46.32	0.77			232	44.15	0.74	
Mother	Class1	62	49.52	1.45	21.765*** (5<1,2,3,4; 4<2)	Externalizing problems 2014	62	49.33	1.50	48.805*** (5<1,2,3,4; 4<2.1)
	Class2	338	48.41	0.63			338	48.12	0.65	
	Class3	35	49.09	1.82			35	48.40	1.82	
	Class4	927	46.76	0.38			927	45.15	0.36	
	Class5	232	44.71	0.74			232	42.75	0.67	
Mother	Class1	62	53.13	1.41	13.373* (4,5<1; 5<2)	Externalizing problems 2015	62	54.79	1.41	36.984*** (5<1,2,3,4; 4<1,2)
	Class2	338	50.51	0.57			338	52.92	0.60	
	Class3	35	49.85	1.68			35	52.79	1.68	
	Class4	927	49.33	0.34			927	50.44	0.34	
	Class5	232	48.58	0.66			232	48.91	0.61	
Mother	Class1	62	50.57	1.47	4.312	Externalizing problems 2017	62	51.62	1.89	21.183*** (5<1,2,3; 4<2,3)
	Class2	338	49.37	0.59			338	50.68	0.62	
	Class3	35	49.61	1.58			35	52.66	1.79	
	Class4	927	48.36	0.38			927	48.73	0.37	
	Class5	232	48.64	0.77			232	47.40	0.73	
Father	Class1	26	46.56	2.18	8.236* (3,4<2)	Externalizing problems 2013	26	46.34	1.79	14.240** (3,4<2)
	Class2	209	50.15	0.87			209	49.44	0.87	
	Class3	938	48.12	0.39			938	46.97	0.38	
	Class4	377	47.27	0.56			377	45.64	0.55	
	Class1	26	49.16	2.13			16.235** (4<3<2)	Externalizing problems 2014	26	
Class2	209	49.37	0.89	209	48.86	0.86				
Class3	938	47.07	0.38	938	45.80	0.37				
Class4	377	45.49	0.57	377	43.68	0.56				
Class1	26	50.49	2.22	4.923 (4<2)	Externalizing problems 2015	26			52.75	2.77
Class2	209	50.71	0.78			209	53.23	0.82		
Class3	938	49.73	0.35			938	50.85	0.35		
Class4	377	48.82	0.51			377	49.88	0.50		
Class1	26	46.37	2.36			7.170 (3<2)	Externalizing problems 2017	26	47.88	2.35
Class2	209	50.90	0.90	209	51.44			0.94		
Class3	938	48.27	0.38	938	49.02			0.38		
Class4	377	48.83	0.61	377	48.35			0.59		

* Mother: Class 1: low constant, Class 2: intermediate constant, Class 3: temporary increment-constantly decrement, Class 4: high constant, Class 5: highest constant

* Father: Class 1: increment, Class 2: intermediate-slightly decrement, Class 3: high-slightly decrement, Class 4: highest constant

* p<.05, ** p<.01, *** p<.001

2집단이 5집단보다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만 5세-만 6세, 초1, 초3 모두에서 잠재계층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차연도(2013년, 만 5세)에서는 잠재계층 1, 2, 3, 4집단이 5집단, 2집단이 4집단보다, 7차연도(2014년, 만 6세)에서는 잠재계층 1, 2, 3, 4집단이 5집단, 1, 2집단이 4집단보다, 8차연도(2015년, 초1)에서는 잠재계층 1, 2, 3, 4집단이 5집단, 1, 2집단이 4집단보다, 10차연도(2017년, 초3)에서는 잠재계층 1, 2, 3집단이 5집단, 2, 3집단이 4집단보다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잠재계층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만 5세-만 6세, 초1, 초3 모두에서 잠재계층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차연도(2013년, 만 5세)에서는 잠재계층 2집단이 3, 4집단보다, 7차연도(2014년, 만 6세)에서는 잠재계층 2집단이 3, 4집단보다, 8차연도(2015년, 초1)에서는 잠재계층 2집단이 4집단보다, 10차연도(2017년, 초3)에서는 잠재계층 2집단이 3집단보다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에도 만 5세-만 6세, 초1, 초3 모두에서 잠재계층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계층 2집단이 3, 4집단보다 외현

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생 이후 5년 동안의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만 5세, 만 6세, 초1, 초3 시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성장분석 결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은 다섯 집단,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은 네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결혼만족도 잠재계층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집단은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가장 낮은 결혼만족도 수준을 보여서 '최저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3.9%인 62명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집단은 5년 동안 전반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면서 큰 변화 없이 5점 척도의 3점 정도의 결혼만족도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중간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21.2%인 338명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집단은 자녀 출생 후 2차연도까지는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다가 2차연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변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일시 증가-지속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2.2%인 35명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집단은 자녀 출생 후 3차연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3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약간 감소하는 변화 형태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 높은 결혼만족도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상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58.2%인 927명이 포함되었다. 다섯 번째 집단은 자녀 출생 후 3차연도까지는 결혼만족도가 약간 증가하다가 3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약간 감소하는 변화 형태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가장 높은 결혼만족도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최상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14.6%인 232명이 포함되었다.

아버지 결혼만족도 잠재계층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집단은 자녀 출생 시점에서는 가장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이지만, 계속해서 큰 폭의 결혼만족도 증가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상승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1.7%인 26명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집단은 초기치는 두 번째로 낮고, 자녀 출생 시

점부터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간 수준-소폭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13.5%인 209명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집단은 초기치는 두 번째로 높고, 자녀 출생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결혼만족도가 소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상수준-소폭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60.5%인 938명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집단은 자녀 출생 후 계속해서 제일 높은 결혼만족도 수준을 보이면서 두드러지지 않는 수준에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최상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24.3%인 377명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집단보다는 결혼만족도 수준의 유지 또는 감소 집단이 더 많다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 결혼만족도 잠재계층의 경우 큰 폭의 감소 집단, 아버지 결혼만족도 잠재계층의 경우 큰 폭의 증가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잠재계층별로 결혼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결혼만족도 증진을 위한 잠재계층별 맞춤형 부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잠재계층에 따라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6차연도(2013년, 만 5세), 7차연도(2014년, 만 6세)와 8차연도(2015년, 초1)에서만 대체로 잠재계층 1집단(최저수준 유지형), 2집단(중간수준 유지형)이 5집단(최상수준 유지형)보다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만 5세, 만 6세, 초1, 초3 모두에서 잠재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잠재계층 1(최저수준 유지형), 2(중간수준 유지형), 3(일시 증가-지속 감소형)집단이 5집단(최상수준 유지형)보다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잠재계층에 따라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만 5세, 만 6세, 초1, 초3 모두에서 잠재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잠재계층 2집단(중간 수준-소폭 감소형)이 3집단(상 수준-소폭 감소형), 4집단(최상수준 유지형)보다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만 5세, 만 6세, 초1, 초3 모두에서 잠재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잠재계층 2집단(중간 수준-소폭 감소형)이 3집단(상 수준-소폭 감소형), 4집단(최상수준 유지형)보다 외현화 문제행

동 수준이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횡단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4, 7-11],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만 5세, 만 6세, 초1, 초3 시기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자녀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가 자녀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관찰학습할 가능성이 큰데,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모일수록 부정적인 정서 표현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22] 자녀의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결혼만족도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결국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모는 온화적 양육태도보다는 방임적 양육행동 또는 강압적이고,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양육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증가한 양육참여는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했을 때 부모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결혼만족도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생 이후 5년 동안의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는데, 어머니의 경우 '일시 증가-지속 감소형 집단'과 아버지의 경우 '상승형 집단'의 특징적인 집단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 궤적이 큰 잠재집단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행복한 가정 및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자녀 출생 이후 5년 동안의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은 어머니 5개 잠재계층(최저수준 유지형, 중간수준 유지형, 일시 증가-지속 감소형, 상승수준 유지형, 최상수준 유지형), 아버지 4개 잠재계층(상승

형 집단, 중간 수준-소폭 감소형, 상 수준-소폭 감소형, 최상수준 유지형)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집단보다는 결혼만족도 수준의 유지 또는 감소 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잠재계층에 따라 대체로 내재화 문제행동보다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더 확연하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잠재계층에 따라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은 잠재계층이 낮은 잠재계층보다 만 5세, 만 6세, 초1, 초3 시기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녀 출생 이후 5년 동안의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문제행동(만 5세, 만 6세, 초1, 초3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M. J. Cox, B. Paley, "Understanding families as system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12, No.5, pp.193-196, 2003.
DOI: <https://doi.org/10.1111/1467-8721.01259>
- [2] C. M. Proulx, H. M. Helms, C. Buehler, "Marital quality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9, No.3, pp.576-593, 2007.
DOI: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7.00393.x>
- [3] P. D. Ki, "The mediating role of valuing children between mari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in the longitudinal dyadic approach",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 No.4, pp.31-52, 2018.
DOI: <http://dx.doi.org/10.21321/jfr.22.4.31>
- [4] G. W. Suh, "The influence of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s peer-play behavior and problem behavior: The mediated effects of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8, No.6, pp.79-91, 2017.
DOI: <https://doi.org/10.5723/kjcs.2017.38.6.79>
- [5] Y. H. Kim, "Trajectories of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couples from childbirth to 5 years postpartum: The 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2008-2012",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7, No.4, pp.47-56, 2016.
DOI: <http://dx.doi.org/10.5723/kjcs.2016.37.4.47>
- [6] M. J. Seo, "Trajectories in and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after the first baby arrive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2, No.3, pp.31-53, 2018.
DOI: <https://doi.org/10.5718/kcep.2018.12.3.31>
- [7] C. K. Kim, M. K. Cho, "Affect of mother's adult

- attachment, marital satisfaction and nurturing attitude on individuation & externalization problem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6, pp.171-195, 2015.
- [8] S. J. Woo, “The effects of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6 No.2, pp.27-40, 2016.
DOI: <https://doi.org/10.30528/jolss.2016.6.2.002>
- [9] J. G. Choi, “Mediating effects of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life satisfaction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the preschoole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6, No.2, pp.367-386, 2017.
DOI: <https://doi.org/10.17643/KJCE.2017.26.2.18>
- [10] J. O. Jo, H. G. Jang, H. Y. Le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mental healt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5, No.2, pp.382-400, 2016.
DOI: <https://doi.org/10.17643/KJCE.2016.25.2.08>
- [11] H. R. Kim, S. M. Ryu,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s behavior problem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yl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9, No.2, pp.193-209, 2015.
- [12] Y. J. Lee, “Childbirth and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of wives: The mediating effects of changes in leisure with husbands and in their housework”,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4, No.4, pp.519-538, 2019.
- [13] J. M. Twenge, W. K. Campbell, C. A. Foster, “Parenthood and marital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5, No.3, pp.574-583, 2003.
DOI: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3.00574.x>
- [14] R. B. Sherrill, J. E. Lochman, J. DeCoster, S. L. Stromeyer, “Spillover between interparental and parent-child conflict within and across day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31, No.7, pp.900-909, 2017.
DOI: <https://doi.org/10.1037/fam0000332>
- [15] O. Erel, B. Burman,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Vol.118, No.1, pp.108-132, 1995.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18.1.108>
- [16] K. Y. Cho, S. K. Kim, H. J. Jeon, “The effects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and coparenting on children’s subjective happiness: Actor effects and partner effects”,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Vol.10, No.1, pp.67-83, 2019.
DOI: <http://dx.doi.org/10.21197/JCEI.10.1.4>
- [17] B. K. Park, S. H. Rhee, J. U. Noh,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leep problem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4, No.1, pp.109-128, 2018.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8.14.01.109>
- [18] E. M. Cummings, C. E. Merrilees, M. W. George, Fathers, marriages, and families: Revisiting and updating the framework for fathering in family context,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154-176)”, Hoboken, NJ: John Wiley, 2010.
- [19] P. M. Schacht, E. M. Cummings, P. T. Davies, “Fathering in family context and child adjust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3, No.6, pp.790-797, 2009.
DOI: <https://doi.org/10.1037/a0016741>
- [20] <http://panel.kicce.re.kr>
- [21] T. Asparouhov,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22] E. A. Fishman, S. A. Meyers,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adjustment: Direct and mediated pathway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22, pp.437-452, 2000.
DOI: <https://doi.org/10.1023/A:1007848901640>
- [23] S. Y. C. L. Kwok, C. C. Y. Ling, C. L. K. Leung, J. C. M. Li, “Fathering self-efficacy, marital satisfaction and father involvement in Hong Ko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2, No.8, pp.1051-1060, 2013.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2-9666-1>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
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